



* 등급정보 (닭고기) *

▷ 19개 업체에서 생산한 3백29만8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1백18만2천수(35.8%), 1등급은 1백93만7천수(58.7%)를 차지, 전월(20개 업체, 3백2만6천수)대비 27만2천수(9.0%)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09년 1~4월	9,875,456	3,415,462	5,583,164	876,830
	(100.0)	(34.6)	(56.5)	(8.9)
'09년 3월	3,025,977	1,241,628	1,603,924	180,425
	(100.0)	(41.0)	(53.0)	(6.0)
'09년 4월	3,298,000	1,181,643	1,936,639	179,718
	(100.0)	(35.8)	(58.7)	(5.4)

* 축산뉴스 (닭고기) *

‡ 춘천 닭갈비 전국브랜드 명품화 작업 착수

강원 춘천닭갈비를 명품화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양계농가협의회와 닭갈비업체, 원료육 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춘천닭갈비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법인체를 추진하고 있다. 사단법인 형태로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며, 올해 국비 등 10억원을 지원받아 닭갈비업체 환경개선사업, 계육유통업체 시설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국비 등 30억원을 투자하는 닭갈비 명품화 사업은 ▲닭갈비 브랜드화 ▲원료육 고급화 ▲유통체계 표준화 등의 사업을 통해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 닭갈비를 전국적인 향토 음식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법인체가 설립되면 원료육을 춘천산 계육으로 대체하고, 원료육도 무항생제나 기능성 닭고기를 생산해 업소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마니커-농협 목우촌, 닭고기 합작회사 출범

닭고기업체 마니커와 농협 목우촌이 (주)목우촌과 마니커를 출범시키며 본격 협력에 나섰다.

마니커는 자사의 협력회사이자 삼계생산 전문업체인 (주)SM의 회사명을 (주)목우촌과 마니커로 변경하고, 매월 50만수 수준의 삼계를 목우촌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목우촌은 이날 시행되는 (주)목우촌과 마니커의 증자에도 참여,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마니커는 농협 목우촌에 매월 육계 60만수,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닭고기) 20만수 등 80만 마리씩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으로 마니커는 협력회사인 '목우촌과 마니커'의 계약분을 포함, 연간 1천500만수, 금액으로는 4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농협 목우촌은 안정된 수급을 기반으로 영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